

Dubai유, 40.72달러로 소폭 하락

석유공사, 이라크 석유수출 정상화 기대 ... WTI도 46.51달러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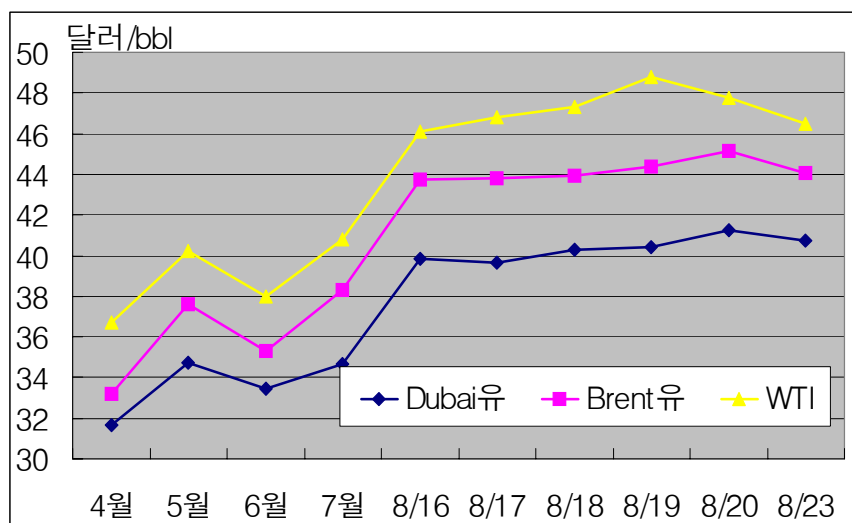
이라크 석유 수출이 정상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최근 1주일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23일 현지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27달러 하락한 배럴당 46.51달러로 8월16일 46.11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다.

북해산 Brent유도 44.03달러로 1.11달러 하락했으며, 중동산 Dubai유는 0.55달러 떨어진 40.72달러에 장이 마감됐다.

선물가격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해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10월물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는 전날보다 0.67달러, 0.51달러 내린 46.05달러, 43.03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국제유가 추이(2004)



석유공사는 “이라크 북부지역 송유관 가동재개 및 남부지역 석유 수출 정상화 소식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며 “그러나 이라크 정정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 Yukos가 자사의 석유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석유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정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화학저널 2004/08/25>